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3월 1일(화) 총 2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시립박물관	담 당 자	•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440-6731 • 담당자 김유나 ☎440-6759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몰랐던 우리 이웃들의 항일운동을 담은 사진전 개최

- 인천시립박물관, 3월 1일부터 갤러리 전시

〈화교들의 항일운동 - 1943년 인천, 일동회〉 개최 -

- 일제가 찍은 일동회의 방화 현장검증 사진을 토대로 전시 첫 선 -

인천광역시는 3.1절을 맞아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새로운 인천 항일운동 자료를 발굴해 〈화교들의 항일운동-1943년 인천, 일동회〉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동회는 1940년대 초반 중국 산둥성 출신의 인천 거주 화교들이 모여 조직한 항일단체로 인천의 주요시설에 대해 폭탄을 투척하는 방식으로 일제에 저항하다 일본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 전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일본 경찰의 심문보고서와 현장검증 사진을 발굴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인천 화교들의 항일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크게 두 공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1부 ‘1943년, 인천’에서는

일동회의 심문보고서에 담긴 당시 인천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1940년대 초반 인천을 촬영한 사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 직전의 인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희귀한 사진들이 소개된다.

2부 ‘일동회’에서는 일동회의 결성과 항일운동 과정, 그리고 검거된 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한 화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한국에서도, 본국에서도 경계인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잊혀 왔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이번 사진전이 3.1절을 맞이해 우리와 함께 일제에 대항했던 우리의 이웃 화교들을 기억하고, 동시에 1943년 당시의 인천 모습을 살펴볼 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전시회는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붙임〉 포스터 및 전시회 사진 자료



〈화교들의 항일운동〉 포스터



일동회의 거점이었던 선린동 복성잔